

대법원 2018도7658 살인등 사건

[인천 초등생 살인사건]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조희대)은 2018. 9. 13. 박○○, 김○○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공소사실 중 '피고인 김○○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 후 사체를 손괴·유기하고, 피고인 박○○이 피고인 김○○의 살인을 방조한 후 피고인 김○○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체의 일부를 유기하였다'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,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도7658 판결)

1. 사안의 내용

▣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임
-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기를 원하는 피고인 박○○을 위하여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, 피고인 김○○이 실행 행위를하기로 계획함
- 피고인 김○○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, 사체를 손괴함
- 피고인 김○○은 사체의 일부를 유기하고, 일부를 피고인 박○○에게 건넨
- 피고인 박○○은 피고인 김○○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체의 일부를 유기함

▣ 원심의 판단

- 피고인 박○○ : 징역 13년, 피고인 김○○ : 징역 20년, 부작명령 30년

● 주요 판단내용

- 피고인 박○○은 피고인 김○○과 살인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였거나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⇒ 피고인 박○○의 살인 공모 부정함
- 그러나 피고인 박○○은 피고인 김○○이 범행 당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눈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 김○○이 실제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피고인 김○○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 ⇒ 피고인 박○○의 살인 방조 인정함
- 피고인 김○○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,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
- 그 외에 피고인 김○○의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, 피고인 김○○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인 반면, 피고인 박○○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

2. 대법원의 판단

▣ 사건의 쟁점

- 피고인 박○○이 피고인 김○○과 살인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
- 피고인 박○○의 행위가 살인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
- 피고인 김○○의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졌는지 여부 및 자수 인정 여부

▣ 판결 결과

- 상고기각 (일부 유죄 확정)

▣ 판단 근거

-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함
-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, 피고인 박○○이 살인을

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

- 피고인 박○○이 피고인 김○○과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살인방조를 인정할 수 있고, 이는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함
- 피고인 김○○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
-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
-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

3. 판결의 의의

- ▣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원심의 판단 및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